

# 정청래 울릉도·장동혁 충청... 여야, 지역 민심 확보 총력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서 첫 방문 생활 인프라 개선 필요성 등 강조  
장동혁, 3일 연속 충청권 찾아 5·18 추모식 참석 가능성 거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경북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열린 주민 애로사항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6월 3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지방선거 중심으로 바쁘게 돌아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당대표로는 처음으로 울릉도를 찾아 주민들에게 “울릉도의 홍보대사가 되겠다. 울릉도를 두 번째 지역구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 있는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주민 애로사항 청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제가 (울릉도에 와서) 제일 먼저 접한 말은 가슴 아프게도 ‘아프더라도 날씨 좋은 날 아파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만큼 기후 여건에 따라서 아프더라도 육지에 나가서 치료받기 어렵

다는 상징적인 말”이라며 “(울릉도로 이동하면서) 크루즈를 타자마자 울릉도를 오가는 배편과 교통편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릉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도민 8900명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주민들로부터 어업 활동 시 경제적 부담, 배편과 체육 시설 부족 등의 애로사항과 독도를 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용한 관광사업 개발 지원 등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포함 남구·울릉군 국회의원은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간담회를 마무리 지으며 “울릉도에 와서 (도민들의) 구구절절하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참 잘 왔다’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제가 울릉도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분주하다. 장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사흘째 충청권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꾸려진 중앙선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장 대표는 영남·충청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전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세종시 나성동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최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다.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를 찾은 데 이어 3일 연속 충청권을 방문하는 셈이다. 충청권은 역대 선거에서 민심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광역단체장 등 지방선거 거론 아니라 충남 아산과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민심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 대표는 충남 보령·서천이 고향이자 지역구라는 점에서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장 대표는 영남권과 충청권을 훑은 이후 보복을 넓혀 호남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 열리는 전

북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고,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맞춰 광주에 방문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 출범한 중앙 선대위가 사실상 장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김기현·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당 중진을 비롯해 중도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공동선대위장에 포함시켰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선대위 첫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우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장 대표 원톱 체제로 하겠다는 것인데, 심지어 분부장급에는 본인과 사이가 껄끄러웠던 사람은 단 한명도 안 들어갔다. 이게 무슨 원팀인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 대오를 촉구하면서 대외 공세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 등을 겨냥한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김보민·박경수 인턴기자 kbm@metroseoul.co.kr

## 1인당 투표용지 7장... 재·보선 지역은 8장

### 6·3 지방선거 어떻게?

용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배부 선거별로 색깔 달라 혼선 방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일 앞둔 14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물품세트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 때 투표나 기호 배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각각의 선거에 별도의 투표를 해야 하므로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선거구 유권자들은 여기에 1장을 더해 최대 8장을 받게 된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2곳이다. 보궐선거는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2곳에서 치러진다.

다만,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호 후 투표함에 넣는다.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는 이때 투표용지를 1장 추가로 받는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한다.

단, 세종과 제주 주민들은 투표용지를 나눠서 받지 않고 한꺼번에 받게 된다.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모든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투표한다.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고 자신이 찍으려는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6월 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는 시행하지 않아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서예진 기자 syj@

## 李 대통령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법정 이자 초과대출은 무효”라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6개월(지나해 11월~올해 4월) 동안 경찰이 총 1553명을 검거했고 이 중 51명이 구속됐다는 내용의 보고 문건 사진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값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 “새마을운동,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李 대통령, 새마을운동중앙회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역사, 특히 근대화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했다”며 “정치쪽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적 영역에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모든 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할 때 새마을회를 포함한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임원진을 모아놓고 ‘단체는 단체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 게 좋겠다, 소위 말하는 정치 쪽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정치적으로 흑여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몰리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 정치인들이 잘 따라다니면 좋아할 거 같은데 사실 무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을 다니다 보니 저

개발국 같은 경우 새마을운동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며 중앙회에 국제 지원활동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간단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단체론 처음으로 새마을을 방문했는데 보면서 들어보니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처음이라고 하더라”라며 “대한민국 봉사단체 중에 아마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낮은 자세로 잘하는 단체가 아마 새마을이 아닐까 싶다”고 격려했다. /서예진 기자